

「南으로 窓을 내겠오」에 있어서의 〈웃음〉

—李白과의 對比에 依한 影響關係의 推定—

盧 在 燦

一. 序 論

ㄷ. 〈南으로 窓을 내겠오〉의 特質

二. 本 論

ㄹ. 李白과의 影響關係攷

ㄱ. 作品名

三. 結 論

ㄴ. 分類의 理由

一. 序 論

月坡 金尚鎔을 觀照의 詩人이라고 한다. 이것은 「一般의인 評」¹⁾인 것 같다. 그러나 〈南으로 窓을 내겠오〉를 그의 「觀照의 詩의 대표작」²⁾이라고 하기에는 언뜻 首肯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南으로 窓을 내겠오

발이 한참 같이

땡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오

새 노래는 꿈으로 들으랴오

1) 「韓國文學全集(34), 詩集(上)詩人略歷」(民衆書館, 서울, 1959) p. 30.

梨花女專에서 敎鞭을 잡으면서 「文章」誌 等に 抒情詩를 發表하다. 그의 詩는 觀照의이란 것이 一般의인 評이다.

2) 金容誠: 「韓國現代文學史探訪」國民書館, 서울, 1973) p. 364.

月坡의 관조적 詩의 대표작이다.

강녕이가 익결랑
함께 와 자서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南으로 窓을 내겠오〉—

첫째는 本人이 代表作이라고 意識하지 않은 듯한 점을 들 수 있다. 그것은 金素雲이 日譯한 韓國詩集인 「乳色の雲」³⁾에서는 「마음의 조각(六)」과 「마음의 조각(八)」의 두 편을 「短章」⁴⁾이란 題下로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選定엔 月坡도 同意했을 可能性이 짙은 것으로 생각된다.

作者들에게는 去年 八月 二十日 자로 자기 往復葉書를 보내어 受諾 與否를 문의한즉, 모두가 異議 없이 贊同했다. 住所를 알아내지 못한 두서너 분이나, 이미 作故한 분을 빼고 一. 그리고 自選을 希望한 분도 있었지만 이것은 全体的 均衡도 있고 해서 내 任意로 하는 것에 諒解를 얻어냈다」⁵⁾

둘째는 이 詩에서 詩人의 悠悠自適한 心境을 읽을 수 있는데, 이러한 淡淡的 脫俗的 世界는 그의 다른 어느 詩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本論자는 이와 같은 처지에서 〈南으로 窓을 내겠오〉의 特質을, 그의 詩集「望郷」⁶⁾을 主된 對象으로 하여 李白과의 影郷關係에서 考察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二. 本 論

月坡 金尙鎔의 詩集「望郷」에 收錄된 二十七篇의 作品 가운데, 「굴뚝노래」「颱風」등 몇 首의 詩와 「南으로 窓을 내겠오」를 除外하고 보면, 그가 觀照에 依해 捕捉한 生의 內容은, 1. 「나그네」 2. 「虛無」 3. 「孤獨」 4. 「運命」 등으로 分類할 수 있다. 여기에 該當되는 作品名과 그 이유를

3) 金素雲: 「乳色の雲」(河出書房, 日本 東京, 1940)

4) *ibid.*, pp. 106~107.

5) *ibid.*, p. 309

6) 金尙鎔: 「望郷」(文章社, 서울, 1939)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作品 省略)

ㄱ. 作品名

1) 나그네

〈서글픈 꿈〉 〈마음의 조각(五)〉 〈마음의 조각(六)〉 〈새벽 별을 잊고
〈물고기 하나〉 〈가을〉

2) 虛 無

〈노래 잃은 뼈 국새〉 〈반딧불〉 〈마음의 조각(一)〉 〈마음의 조각(二)〉 〈마
음의 조각(四)〉 〈黃昏의 漢江〉

3) 孤 獨

〈쟁이〉 〈浦口〉 〈마음의 조각(三)〉 〈마음의 조각(八)〉 〈祈禱〉 〈追憶〉
〈鄉愁〉 〈나〉

4. 運 命

〈한잔 물〉 〈어미소(未完稿)〉 〈마음의 조각(七)〉

ㄴ. 分類의 理由

1) 나그네

〈서글픈 꿈〉—「폴잎 우는 아침 〈혼자 가겠오〉라 하는 것은, 生의 나날
을 旅行이라고 보는 나그네 意識이라고 하겠으며, 目的地의 明示가 없
는 것은 人生을 나그네로 보되, 定處가 없다는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마음의 조각(五)〉—「혼자 가련다」에서 볼 때, 〈서글픈 꿈〉과 같은 意
識이 된다.

〈마음의 조각(六)〉—「오코 가고 나그네 일ियो」라고 하여 그것을 直說的으로 노래하고 있다.

〈새벽 별을 잊고〉—「겨를 없이 길만을 가노라」「길! 아! 먼 진흙 길」「머리를 드니 가을 夕陽에 하늘은 저러히 멀다」등의 表現에서는 人生이라 하는 나그네의 길이 끝없는 艱難辛勞의 것이로되, 그 길을 사뭇 걸지 않을 수 없다는 嗟嘆이라 하겠다.

2) 虛 無

〈노래 잃은 뼈꼭새〉—四聯의 「물짓는 處女 돌아간 黃昏의 우물가에 쓸쓸히 빈 동이는 놓였다」는 三聯의 「때는 지긋이 꿈 심었던 터전을 荒廢의 그늘로 덮고…」와의 관련에서 볼 때, 人生의 虛無를 象徵的으로 나타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딧불〉—「첫고대의 밤이 가면 실은 새 아침 가만히 네 불꽃은 꺼진다」에서 虛無感을 자아낸다.

〈마음의 조각(一)〉—첫 聯에서부터 「虛空에 스러질 나는 한 점의 無로—」라 하고 있는 만큼 敷衍을 要하지 않는다.

〈마음의 조각(二)〉—「죽음의 거리여!」한 것은 虛無를 말한 것이겠거니와, 「석은 진흙 골에서 그래도 샘 찾는 몸이 될가」에서는 그 努力이 결국은 徒勞에 그치어, 虛無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理解된다.

〈마음의 조각(四)〉—「내 녀은 암흑과 짝진지도 오래거니—」에서는 生을 虛無로 보는 생각이 確固함과 그런 狀態가 오래 持續돼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

〈黃昏의 漢江〉—「아! 긴 歲月, 슬픔과 기쁨은 셋거 가고 예도 이젠듯 하늘이 저기에 그른다」고 하였으니, 여기에는 虛無感만이 있게 된다.

3) 孤 獨

〈팽이〉—「외로운 幸福에 너는 호울로 눈물지운다.」하는 것이 月坡 自身

의 感情移入은 贅言을 要하지 않는다.

〈浦口〉—「杳漠한 하늘 아래 告할 곳 없는 旅情이 고달퍼라.」에서는 절실한 孤獨感을 알게 한다.

〈마음의 조각(三)〉—「고독을 밤새도록 잔질하고난 밤, 새 아침이 눈물 속에 밝았다」하는 二行의 짧은 이 詩는 그의 孤獨感을 대표하는 것이라 보아진다.

〈마음의 조각(八)〉—「물」과「하늘」과「님」이 버리면 외로운 다람쥐처럼 이 보금자리에 쉬리로다.」 하였으니, 「물」과「하늘」과「님」만을 그리워하는 孤獨이 있는 것이다.

〈追憶〉—호젓한 哀傷이라든가, 저녁의 濤聲을 그리워하는 것에서 孤獨感을 表出하고 있다.

〈鄉愁〉—孤獨感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움이 있다.

〈나〉—품에 있는 그대조차 나를 理解할 수 없다고 하는 認識은 더할 수 없는 孤獨感이 아닐 수 없다.

4) 運 命

〈한 잔 물〉—「너른 바다 수많은 波頭를 버리고 何必 내 잔에 담겼든 물」이란 것에서는, 자기 잔에 담겼던 물마저도 宿命的인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 된다.

〈어미소〉—「슬픈 또 하루의 네 날」이라고 하여 어미소의 運命을 규정짓고 있다.

〈물고기 하나〉—「지금 너는 또 다른 웅덩이로 길을 떠나노니 나그네될 運命이 永遠 끝날 수 없는 까닭이나」에서 볼 때, 그것이 作者의 感情移入인 만큼, 月坡의 마음의 世界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望鄉〉에 실린 그의 詩를 네 가지 內容으로 分類했지만 이것으로써 그것들이 截然히 區別지어 지는 것이 아님은 勿論이다. 例컨데, ①의 〈서글픈 꿈〉 〈마음의 조각(五)〉 〈마음의 조각(六)〉 〈새벽 별을 잊고〉 등은 ②에도 包含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것들은 네 範疇 속에 概括된다 하겠다.

ㄷ. 〈南으로 窓을 내겠오〉의 特質

이와 같은 그의 詩의 性格을, 見地에 따라서는 感傷의이라고 일컬어지지 않는다. 李○朝의 見解가 바로 그것이다.

오코 가고
나그네 일리오

그대완 잠시
동행이 띄고

는 벌써 孤獨을 達觀함으로써 그것에 哀傷하지 않는 一種의 安身立命의 境地에 이르렀으며, 「어미소」(未完稿)는 多分の 寓意가 숨어 있으나, 亦是 이 詩人의 詩的 操行에 따라 털끝만치도 넘나거나 지나치는 법이 없으니…」⁷⁾

「孤獨을 達觀함으로써 그것에 哀傷하지 않는」이라든가, 「털끝만치도 넘나거나 지나치는 법이 없으니…」 등이 這間의 事情을 말해 준다 하겠다. 이것은 東洋의 詩的 傳統인 「哀而不傷」⁸⁾을 뜻하는 것으로서 金煥泰도 꼭 이와 같은 意見을 披瀝하고 있다.

「詩人 金尙鎔의 눈에 비친 생은 외로운 것이요, 슬픈 것이요, 서글픈 것이요, 안타까운 것이다. —中略—

그러나 그의 詩는 전체가 밤과 같은 우울이나, 潮水같은 고통이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비애에 덮여 있지는 않다.」⁹⁾

「자기의 마음을 비워 놓고 그 속에 生의 온갖 느껴움을 조금도 흐림 없이 받아들여려고 한다. 그리하여 生의 느껴움을 과장하거나 修飾하지 않으며, 그리하므로 痛哭하거나 고함치지 않는다」¹⁰⁾

아래의 글도 대체로 이런 「哀而不傷」의 뜻으로 생각된다.

7) 「文章(1卷 6號)」(1939. 7. 1) pp. 193~194.

8) 「論語」〈八佾〉 子曰 關雎樂而不淫 哀而不傷

9) 金煥泰：『金煥泰全集』(現代文學社. 서울. 1972) p. 107

10) *ibid.* p. 108

「그는 人生을 수식하거나 가치 이상으로 과장하지는 않았고, 허무감에 찬 노래를 불렀으나 울음에 빠지지 않는 인생 긍정의 일면도 보였다」¹¹⁾

그러나, 「哀而不傷」으로 要約되는 이러한 評說 속에 〈南으로窓을 내겠오〉까지를 포함시킨 데 대해서는 再考의 餘地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南으로窓을 내겠오〉는 餘他の 作品과는 다른 性格 곧 哀而不傷이 아닌 〈외로움〉 〈슬픔〉 〈서글픔〉 〈안타까움〉 등을 超越한 境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金煥泰의 아래와 같은 말이다.

왜 사나건

웃지요

이는 생을 觀照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인생태도다.¹²⁾

이것은 月坡의 觀照가 虛心坦懷하다는 것을 前提로한 것이라 생각된다. 金煥泰는 〈쟁이〉와 〈한잔물〉을 引用하여 月坡의 虛心을 言及하고 있다.

「이 詩人の 觀照에 비친 두 세계를 보라. 그 두 世界는 그 자신으로서 存在하는 한 全體로서 完全하지 않으나. 그리고 거울 속에 들어가 비친 어떤 影像처럼 이 詩人の 보드라운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이 詩人은 거울 이 편에 확실히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¹³⁾

이와 같이 月坡의 마음을 거울에 비기어 그 虛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글에 앞선

「자기의 마음을 비워 놓고」¹⁴⁾

란 말에서 보다 분명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虛心을 거울에 비긴다면 主体는 動搖가 없이, 오는 것은 그대로 비추지만, 떠나고 나면 아무런 痕

11) 金容誠：前揭書，p. 362

12) 金煥泰：前揭書，pp. 108~109.

13) *ibid.* pp. 111~112

14) *ibid.* p. 108

跡도 남기지 않는, 곧 「不將不迎」¹⁵⁾의 것이어야 한다고 할 때, 月坡는 결코 虛心坦懷 할 수가 없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그것은,

외로운 幸福에
너는 호을로 눈물지운다
—〈평 이〉—

허전한 마음
그릇의 비임만을 남긴
아! 애달픈 追憶아!
—〈한 잔 불〉—

등과 같이 對象을 詩人의 感情移入으로 着色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月坡의 詩的世界에서는, 喜怒哀歡에서 超脫한 〈南으로 窓을 내겠오〉는 異質의이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勘考하면 〈南으로 窓을 내겠오〉의 特質이 보다 또렷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① 「望郷」以外的 時調를 包含한 그의 作品에서 이런 超脫한 경지에 이른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後日의 그의 時調 「어린 것을 잃고」¹⁶⁾ 「바다」¹⁷⁾ 등이 이를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피로운 이 娑婆에 먼저 간 네가 붉다.
붉은 네 신세라 굳이 잊자 하건마는
넋든 네 자리 불 때면 가슴 먼저 막히누나

冬三朔 바람 차고 北邙에 눈 덮이면
가없다 어린 네가 地下에 어이 자련
오늘도 흙바닥 짚고 우는 줄을 아느냐

머리맡 등만 봐도 좋다 등둥 하든 네가
호을로 地下 漆壁 어두워 어이하란

15) 「莊子」〈應帝王〉 至人之心若鏡 不將不迎 應而不藏 故能勝物而不傷

16) 李秉岐：李泰極 共編 「現代時調選集」(새 글社, 서울, 1958) p. 16

17) *ibid.* p. 18

이제는 달만 솟어도 잡창 굳이 달으리라

불없다 설어 달고 달 밝건 달을 보고

西山에 달이 지건 머리맡 벽을 보고

비 구름 별마저 덮건 고이 잠아 돌거라

—〈어린 것을 잃고〉—

바다도 마를 것이

하늘도 변할 것이

無量法界를

말할이 누구런고

一點의 一瞬의 몸을

일려 무삼하리오.

—〈바다〉—

이와 같이 月坡는 끝내 〈虛無〉 〈孤獨〉 등의 경지에서 끝내 解脫되지 못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② 月坡의 詩의 世界가 淡淡하다든가, 그의 個性이나 人生觀이 健康하고 明朗하고 樂天的이라 할 때는, 그의 詩를 總括해서 論述된 것이 아니고, 이 〈南으로 窓을 내져오〉에 局限시키고 있다는 것에 留意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시의 주제는 얼른 보아 귀농사상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너무 그처럼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귀농은 주제라기보다는 이 시의 제재에 그칠 일이고, 이 제재를 통하여 표현되는 이 작자의 건강하고 명랑하고 낙천적인 개성이나 인생관 그것 자체를 이 시의 주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¹⁸⁾

「南으로 窓을 내져오」는 愛蘭詩人 예이츠의 이니스프리를 聯想시킨다.

나는 일어나 바로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

외우고 흙을 발라 조그만 집을 지었어

18) 金顯承: 「韓國現代詩解説」(關東出版社, 서울, 1973) pp. 160~161

아홉이랑 콩을 심고 꿀벌의 집은 하나
술 가운데 비인 땅에 벌 잉잉거리는 곳
내 홀로 거기서 살으리.

〈이니스프리〉의 一節이다. 月坡 金尙鎔의 淡淡한 詩의 세계와 共通된다.

왜 사냐건

웃지요.

는, 누구가 왜 사느냐 묻는다면 그냥 웃어 버리고 마리라는 뜻이다. 倅히 人生을 풀러 보려 倅쓰지 않고 自然에 順應해서 한 포기 樹木처럼 生을 營爲하는 이 詩人의 風貌가 나타나는 것이다.¹⁹⁾

③ 이 〈南으로 窓을 내겠오〉가 田園 生活에서 직접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一九三五 년을 전후하여 詩를 발표할 무렵, 그러니까 그는 이미 고향을 멀리하고 도시에 묻혀 있으면서 田園에 대한 향수, 또는 거기에 유토피아를 구한 것처럼 보인다.²⁰⁾

李朝의 선비들이 그들의 時調에서 田園에의 復歸를 노래한 것이 「本質的 自然愛好人」²¹⁾으로 看做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 때, 月坡가 말하는 「진실한 느껴움」²²⁾이란 것도 〈南으로 窓을 내겠오〉에 있어서는 考慮의 對象이 되는 것이다.

④ 月坡의 詩集 「望郷」에 실린 〈굴뚝 노래〉²³⁾와 〈颱風〉²⁴⁾이 그의 詩的 世界의 本顔이 되는 「虛無」「孤獨」등과는 無關한 것을 勘案한다면, 이

19) 徐廷柱, 朴木月, 趙芝薰: 「詩創作法」(宣文社, 서울, 1953) pp. 187~188

20) 金容誠: 前掲書 p. 364

21) 李能雨: 「理解를 위한 李朝時調史」(以文堂, 서울, 1956) p. 155

田園에의 복귀는 그것을 현대적 어떠한 취미로서 간주할 수는 없다. 그것은 거의 전부가 다 陶淵明淵 棄官이니 만일 어들에게 다시 감투를 준다면 언제든지 나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은 本質的인 自然 愛護人들이 아닌 것이며 곧 정부가 버린 것으로서, 또한 당시의 정치 기류를 짐작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2) 金尙容: 前掲書 p. 3

23) *ibid.* pp. 46~49

24) *ibid.* pp. 54~57

〈南으로 窓을 내겠오〉가 그의 一般的 觀照의 詩에 比하여 그 趣向을 달리 하고 있는 것도 심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맑은 하늘은 새 님이 오신 길!
 사랑같이 아름 별 밑물 짓고
 「에트나」의 傲慢한 「포—즈」가
 미움도룩 아름져 오르는 黑煙
 現代人의 뜨거운 意慾이로다.

자지라진 「로맨스」의 愛撫를
 아직도 나래 밑에 그리워하는 者에!
 蒼白한 꿈의 新婦는
 굴방으로 보낼 때가 아니나?

—〈굴방 노래〉의 1. 2 聯—

죽음의 밤을 어질르고
 門을 두드려 너는 나를 깨웠다.

어지러운 兵馬의 驅馳
 槍劍의 맛부디칩
 爆發, 突擊
 아! 저 咆哮와 閃光!

攪亂과 混沌의 主宰여
 꺾이고 부시지고,
 날리고 물력과
 安逸을 享樂하는 秩序는 거진다.

—〈颯風〉의 1. 2. 3. 聯—

⑤ 月坡의 詩 속에서 「悠然한 웃음」이 있는 것은 이 〈南으로 窓을 내겠오〉 뿐이다. 이것은 〈望郷〉 以外の 詩에서 「웃음」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悠然한 웃음〉과는 性格을 달리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한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웃음」은 대체로 ‘울음’이나 ‘죽음’과 聯關되어져 나타난다. ‘웃음’이 단독으로 使用되었을 경우도 그 뒤에는 반드시 悲哀나 죽음의 이미지가 隨

伴되기 마련이다.]”

2. 李白과의 影響關係攷

〈南으로 窓을 내겠오〉의 性格을 이와 같이 보는 처지에서 그 緣由를 考察한다면, 그것을 李白과의 影響 關係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25) 金烈主, 李在銑, 金澤東: 「韓國文學의 傳統과 變革」 (西江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서울 1976) pp. 154~156

그리고 “왜 사나전! 웃지요”하는 웃음의 意味는 生에 대한 明確한 對答을 피하고 그저 웃어넘긴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現實에 參與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人生態度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웃음’의 用語는 月坡의 詩에 많이 나타나 있는 바, 이것은 대개 ‘울음’과 聯關되어져 있다.

너털 웃음속 울든 나를 보고
춤추며 한숨짓는 나를 보리

—〈내 生命의 참詩 한首〉—에서

그대 우시 라는가 눈물도 고마우리

그대 웃으려나 웃음도 반가우리

—〈내 生命의 참詩 한首〉—에서

크읍신 「절로」 속에
흔 웃글 이 一生을
마음이 하지는 대르
울다 웃다 갈가나

—〈失題〉—에서

가면 그만 일다

웃어 노코

하염없이

넘는 해 보는 내 마음

나는 몰라라

—〈斷想〉의 전문—

事實 네(내) 앞에 「죽음」이 눈을

부릅뜨도

웃을 것도 갈네

—〈無題吟二首〉—에서

너는 운우리 처앗은 帝王같이

네 領土를 웃으며 보도다

—〈쟁이〉—에서—

다만 그래나, 나와 갖치

그도 웃고, 그도 울다가

사라지는 아름 안개와 함의

그의 一生의 꿈도

사라졌다는 것만 記憶하게 그러

—〈無題〉—에서

가라 ... 웃어보내고

..... 혼자 울었노라

—〈無題三首〉—에서

空間의 목을 찢다 찢다

힘진하야

네 앞길 우습드르며

쓰러졌노라

—〈敗北〉—에서—

위의 引用詩에서 볼 수 있듯이, ‘웃음’은 대체로 ‘울음’이나 ‘죽음’과 聯關되어져 나타난다. ‘웃음’이 단독으로 使用되었을 경우도 그 뒤에는 반드시 悲哀나 죽음의 이미지가 隨伴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서 ‘울음’이나 ‘죽음’은 共質의인 屬性으로 人間生命의 限界意識에서 빚어지는 虛無感을 基調로 하고 있다.

그 까닭을 列舉하면 아래와 같다,

① 〈南으로 窓을 내겠소〉의 있어

「왜 사나진

웃지요」는 李白의 「山中問答」²⁶⁾의

「問余何意栖碧山 笑而不答心自閑」

의 縮約된 表現이다.

② 〈南으로 窓을 내겠오〉에 있어서의 「南으로 窓을 낸 집」 「한참 같이
의 밤」 「그 밤에서 익는 강냉이」 등이 「山中問答」의 「桃花流水杳然去 別
有天地非人間」과 마찬가지로 讀者로 하여금 幽玄한 경지에 이끄는 것이다.

③ 世事에 지달릴 때 歸着하는 곳이 다 같이 田園이란 점도 看過될 수
없다. 月坡의 田園에의 鄉愁는 李白에 있어, 農耕이 自己 本來의 性味에
맞으며, 술과 더불어 田園에서 悠悠自適하고 싶어하는 心境과 同軌의 것
이다.

「拙薄遂疎絕 歸閒事耦耕 顧無蒼生望 空愛紫芝榮」²⁷⁾

「野情轉蕭散 世道有翻覆 陶令歸去來 田家酒應熟」²⁸⁾

④ 〈南으로 窓을 내겠오〉에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처럼 自
然을 觀賞하는데 金錢이 言及된 것은 特異한 것으로 보아진다. 이것은

26) 李白： 問余何意栖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

—山中問答—

27) 李白： 小隱慕安石 遠游學子平 天書訪江海 雲臥起咸京
入侍瑤池宴 出陪玉輦行 誇胡新賦作 諫獵短書成
但奉紫雲頤 非邀青史名 莊周空說劍 墨翟恥論兵
拙薄遂疎絕 歸閒事耦耕 顧無蒼生望 空愛紫芝榮
寥落瞑霞色 薇茫舊壑情 秋山綠蘿月 今夕爲誰明

—秋夜獨坐懷故山—

28) 李白： 何處聞秋聲 脩脩北窓竹 迴薄萬古心 攬之不盈掬
靜坐觀衆妙 浩然媚幽獨 白雲南山來 就我簷下宿
頗從唐生決 遑訪季主卜 四十九年非 一往不可復
野情轉蕭散 世道有翻覆 陶令歸去來 田家酒應熟
—潯陽紫極宮感秋作—

「清風朗月不用一錢買」²⁹⁾과 같이 李白의 詩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蘇軾의 「夫天地間 物各有主 苟非吾之所有雖一毫而莫取 惟江上之清風與山間之明月 耳得之而爲聲 目遇之而成色 取之無禁 用之不竭 是造物者之無盡藏也」³⁰⁾ 따위와는 對照가 된다 하겠다.

⑤ 「피치야의 李太白인 오마르 카이얌을 좋아하는 분」³¹⁾이 月坡일진데 李白과 의 影響 關係도 排除할 수 없는 要素로 보아진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가운데 ③④⑤에는 再考의 餘地가 남아 있다.

그것은 ⑤의 歸農思想이 東洋文士들의 傳統的 思考의 範型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며, ④의 경우는 그것이 偶然한 것으로 看做 될 수도 있겠고, ⑤에서는 그것이 斟酌의 範圍에 그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처지에서는 視點을 ①②로 좁힐 수밖에 없다. 「南으로 窓을 내겠오」에 있어서의 悠然한 웃음의 緣由가 問題의 重要性을 띄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依然히 考慮해야 할 점이 뒤따른다. 詩句의 어느 部分이 同一하다든지, 詩想의 類似性만으로는 쉽사리 影響 關係를 云謂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元來 作品 속에서 影響이 分명한 形態를 취하여 殘存하는 것은, 作家로서는 初期習作時代의 것이거나 또는 未流의 作家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 는 것일제다. 훌륭한 作品의 경우에는는 影響은 많이 消化되 버린 것으로서 나타난다. 二 三의 語句가 外國 文學에서 借用돼 있다고 해서 누구의 影響 아래 이뤄진 作品이라고 論하는 것은 輕薄하다.」³²⁾

비록 이러한 것을 念頭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해도, <南으로 窓을 내

29) 李白: 落日欲沒岷山西 倒著接羅花下迷 ① 一中略一
誰能憂彼身後事 金甌銀燭葬死灰 清風朗月不用一錢買
玉山自倒非人推 一下略一
一襄陽歌一

30) 蘇軾: 「前赤壁賦」

31) 李○俊: 金尙鎔의 人間과 藝術 「三千里文學 第二輯」(1938.4) p. 199

피치야의 李太白인 오마르 카이얌을 좋아하는 분의 詩로는 너무나 焦點만을 向해 돌아드는 것 같았고 더욱 無何先生을 쓰는 분으로는, 여러 篇이로되 詩가 餘技요 한 篇이로되 散文이 本業이 다닐까 느끼인 것이다.

32) 太田三郎: 「比較文學」(研究社出版株式會社, 日本東京, 1955) p. 27

져오」가 〈山中問答〉에 示唆되고 觸發될 可能性이 심분있다고 한다면, 아래와 같은 立場에 설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完全히 消化가 돼 버린 影響은, 形態로서는 指摘할 수가 없다. 獅子의 삶은 그가 먹은 羊의 고기로 이뤄졌다 해도 獅子의 고기를 分析한다고 해서 羊의 고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獅子의 고기는 羊의 고기와 無關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의 研究는 外形의인 實證的인 研究를 固執하고 있는 限에는 不可能하다. 이것은 作品 그 自体의 分析과 總體的 判斷 또는 作品의 系列的 發展의 研究를 기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³³⁾

이런 眼目으로 〈南으로窓을 내져오〉에 나타난 「悠然한 웃음」의 所從來를 考究함에 있어 李白과의 影響 關係를 推定할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月坡가 生의 內容을 「나그네」「虛無」「孤獨」「運命」등으로 認識함이 李白과 같다는 점이다.

李白도 人生을 「나그네」로서 捕捉하고 있다.

「夫天地者萬物之逆旅 光陰者百代之過客」³⁴⁾

天地라는 것이 萬物을 수용하는 旅館이고 보면, 人間은 이 旅館 속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나그네」가 된다. 그래서 人間이 세월을 보내는 것은 「나그네」로서이다.

李白은 또한 人生을 〈虛無〉한 것이라 하고 있다. 「浮生若夢」³⁵⁾ 이란 것이 이를 말해주는 것이 된다. 이것은 그의 詩에서도 表現되고 있는 바다

「處世若大夢 胡爲勞其生 所以終日醉 頽然臥前櫬」³⁶⁾

33) *ibid.* p. 28

34) 李白：「春夜宴桃李園序」

夫天地者 萬物之逆旅 光陰者百代之過客 而浮生若夢 爲權幾何
古人秉燭夜游良有以也 況陽春昭我以煙景 大塊假我以文章
一下略一

35) 李白：

36) 李白：「春日醉起言志」

「處世若大夢」이란 것은 事物을 變易속에서 把捉하고 있음을 말한다. 知的 認識이란 對象을 얻어서 確定되는 것이지만은 對象이 되는 事物自体는 끊임없는 變化 가운데 있다고 할 때, 事物을 識別하는 認識이란 것은 一時的인 것에 不過하기 때문이다. 이런 見地에 서면 人生도 끝없는 變化 속에 있어서의 한 樣相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꿈일 수 밖에 없다. 莊子에 心醉한 그의 다음과 같은 詩는 이러한 생각을 具體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아진다.

「莊周夢胡蝶 胡蝶爲莊周 一體更變易 萬事良悠悠
乃知蓬萊水 復作清淺流 青門種瓜人 舊日東陵侯
富貴故如此 營營何所求」³⁷⁾

이밖에도 人生 行路를 虛無한 것이라 보는 詩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吳宮花草埋幽徑 晉代衣冠成古丘」³⁸⁾

「越王勾踐破吳歸 義士還鄉盡錦衣 宮女如花滿春殿 只今惟有鷓鴣飛」³⁹⁾

李白의 詩에서도 孤獨感의 表出은 있다.

「白晚猩猩啼 空悲遠遊子」⁴⁰⁾

「何年是歸日 雨淚下孤舟」⁴¹⁾

晩年이 不幸했던 만큼, 그의 이러한 孤獨感을 나타내는 詩는 많은 것이

37) 李白:「古風其九」

38) 李白: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 吳宮花草埋幽徑 晉代衣冠成古邱
三山半落青天外 一水中分白鷺洲 總爲浮雲能蔽日 長安不見使人愁
一登金陵鳳凰臺一

39) 李白:「越中覽古」

40) 李白:清溪清我心 水色異諸水 借問新安江 見底何如此
人行明鏡中 鳥度屏風裏 向晚猩猩啼 空悲遠遊子
一清溪行一

41) 李白:秋浦猿夜愁 黃山謫白頭 清溪非隴水 翻作斷腸流
欲去不得去 薄遊成久遊 何年是歸日 雨淚下孤舟
一秋浦歌十七首 其一一

다. 그리고 비록 그가 直說的으로 人生이 孤獨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人生을 孤獨한 것이라 본 것은, 「春夜宴桃李園序」의 「夫天地者萬物之逆旅 光陰者百代之過客 而浮生若夢 爲權幾何」가 이를 代辯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이 글에서 볼 때, 그가 無限한 宇宙라든가 永遠한 時間을 意識하여 自己의 矮小함에 대한 不安과 孤獨을 느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李白도 人生을 「運命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

「升沈應已定 不必問君平」⁴²⁾

人間事에 있어서의 成功 失敗 등은 이미 定해져 있다고 말하는 「升沈應已定」이란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李白이 生의 內容을 〈나그네〉 〈虛無〉 〈孤獨〉 〈運命〉 등으로 본다고 해서 月坡의 詩的 世界와 같은 것은 아니다. 月坡에 있어서는 觀照에 依해서 그것을 認識한 것에 不遇한데 比하여, 李白은 그것을 認識하고는 그것을 克服하려 하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兩者의 本質的인 差異가 있다 하겠다.

李白이 人生을 〈나그네〉로 보며 〈虛無〉란 것으로 생각하는 「春夜宴桃李園序」의 첫머리의 글에 이어진 「古人秉燭夜遊 良有以也 況陽春召我以煙景 大塊假我以文章」으로써 그가 〈나그네〉로서의 〈孤獨感〉 〈不安感〉 〈虛無感〉 등을 온통 씻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가 人生을 虛無한 것으로 보는 「春日醉起言志」에서도 「胡爲勞其生 所以終日醉 頽然臥前楹」이라 한 것에서, 人生을 虛無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悲哀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拘碍되지 않으려는 그의 意圖를 알게 하는 것이다. 「古風其九」도 人生 變易의 原則에 비추어 보면 富貴도 虛無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營營何所求」라 하여 그것을 無視하러 들고 있는 것이다. 그가 孤獨感을 읊은 「清溪行」을 말하더라도

42) 李白：見說郛叢書
芳樹羅秦棧

崎嶇不易行
春流遶蜀城

山從人面起
升沈應已定

雲傍馬頭生
不必問君乎
一送友人入蜀一

「空悲遠游子」라 하여 슬퍼하고는 있지만, 詩 自体로서는 颯颯悠悠한 氣韻에 차 있어 조금도 沈鬱한 氣色이 엿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가 人間事를 宿命的인 것이라 노래할 때도 事情은 다들바가 없다. 「送友人入蜀」에서 「升沈應已定」이라 하고는 「不必問君平」으로 이어 自己의 運命에 관해서는 君平和 같은 筮卜者에 물을 必要性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梁園吟」에서는, 人間의 運命을 是認하면서도, 達觀해 버린다면 무슨 悲哀가 있겠느냐 하고 있다. 喜悲哀歡에 執着되지 않는 李白의 豪宕한 氣概를 엿볼 수 있게 된다 하겠다.

요컨대 李白은 「浮生若夢」이라 하여 人生의 슬픔, 외로움 등을 意識했기 때문에 그것을 強力한 그의 意志와 感情의 힘으로 克服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뤄진 그의 詩的 世界는 感傷이나 悲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의 有名한 「秋浦歌」⁴³⁾가 이를 如實히 말해 주는 것으로 보아진다.

白髮三千丈 緣愁似箇長 不知明鏡裏 何處得秋霜

「白髮三千丈」이라고 한 詩人의 놀라움은 同時에 그것이 슬픔이요, 孤獨인 것이다. 그러나 다음 瞬間에 그는 그 슬픔과 孤獨을 諧謔으로써 克服하고 만다. 그래서 그는 그 슬픔과 孤獨을 淡淡한 筆致로 나타내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리하여 이 詩 속에는 達觀된 울음이 있게되는 것이다. 이런 「웃음」 곧 「獨酌清溪江石上寄權昭夷」⁴⁴⁾의 「舉杯向天笑 天迴日西照」나 「山中答俗人」의 「問余何意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등과 같은 것이야말로 그의 詩의 本領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점이 月坡의 詩的 世界가 李白의 그것과는 本質的으로 그 性格을 달리 하는 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月坡와 李白은 다같이 生의 內容을 「나그네」 「虛無」 「孤獨」 「運命」 등으로 認識하면서도,

43) 李白：「秋浦歌 其十五」

44) 李白：我攜一樽酒 獨上江祖石 自從天地開 更長幾千尺
舉杯向天笑 天迴日西照 永願坐此石 長垂巖陵釣
寄謝山中人 可與爾同調 一獨酌清溪江石上寄權昭夷

前者는 그러한 認識에 머물고 있는데 比하여 後者는 그것을 克服하려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南으로窓을 내겠오」만은 사정이 다르다. 李白과 같은 達觀된 「웃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前述한 바와 같이 그의 詩的 世界에서 脈絡을 찾을 수 없는 것이며, 또는 그의 人生 態度的 結論이라고 할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닌 만큼, 「山中問答」과 꼭 같은 詩句와 發想 등에서 볼 때 이 詩야말로 李白의 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三. 結 論

月坡의 詩集 「望鄉」을 中心으로 한 그의 詩的 世界는 人生을 「나그네」 「虛無」 「孤獨」 「運命」 등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望鄉」 以外에도 그의 初期의 詩나 後日의 時調 등에서 까지 一貫된 主題가 된다. 그리고 그가 生의 虛無와 孤獨 등을 노래함에 있어 誇張과 修飾이 없다는 것을, 傳統的인 眼目으로 볼것같으면, 哀而不傷이라 하겠으나, 그의 沈潛한 形而上學的 冥想이 그로하여금 觀照의 詩人이라 일컫게 되는 理由로 보아 진다. 그런데 「南으로窓을 내겠오」만은 그 性格이 달라 진다. 그것은 이 詩가 그의 餘他의 詩에 比해 虛無, 孤獨 따위의 哀傷이 전연 없을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超克한 達觀의 境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는 그 緣由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 注目되는 것은, 이 詩에 있어서의 「왜 사나진 웃지요」라는 詩句가 李白의 「山中問答」 속의 「問余何意 栖碧山 笑而不答心自閑」과 같을 뿐만 아니라 그 超俗的인 詩境까지도 山中問答과 彷彿하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李白의 詩의 本領이 感傷이나 悲哀에 있지 않고, 그것의 超克과 達觀에 있다고 하겠는데, 이 「南으로窓을 내겠오」는 月坡의 詩的 世界와는 달리 李白의 「山中問答」과 같은 超俗的인 境地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다. 이것은 「南으로窓을 내겠오」가 李白의 「山中問答」에 依해 示唆되고 觸發된 것이라고 推定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 된다 하겠다.